



# 여성에게 가장 많은 종양, 자궁근종

그러나 내시경 수술로 2~3일이면 회복되고  
약물 치료로도 가능

황경진 박사 | 그레이스병원

## << 케이스 1.

41세의 정여인은 평소에 하혈을 자주하고 또 생리통이 심하며 생리량이 무척 많아 내원했다. 내진을 해보니 자궁크기는 거의 정상이었지만 질식 초음파 결과 자궁내막 가까이 불과 엄지손가락 끝만한 자궁 근종이 나타났다.

자궁근종에 의한 증상은 반드시 크기에 비례하지는 않는다. 근종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위치가 중요하다. 어떤 경우는 배꼽위로까지 만져질 정도로 커다란 근종이 별

증상없이 있는가 하면 이처럼 자궁내막에 가까이 있는 조그마한 근종이 오히려 출혈이나 통증이 심할 수 있다. 정여인은 자궁내시경을 이용하여 즉시 근종 제거술을 받고 그 날 바로 퇴원하였다.

## << 케이스 2.

박여인은 특별히 아픈 데는 없고 그냥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내원한 경우다. 그런데 진찰 결과 어찌나 자궁이 딱딱하고 울퉁불퉁한 덩어리들이 많은지 깜짝 놀랐다. 근종은 이렇게 마치 감자처럼 수없이 크고 작은 것들이 줄줄이 있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한 여성에서 200개까지 나왔다는 보고도 있다. 박여인은 골반 내시경을 이용 자궁을 흑과 함께 떼내는 수술을 받았고 3일 만에 건강한 몸으로 귀가했다.

## << 케이스 3.

여고 2년 생인 박양은 평소에 월경통이 심하고 월경량이 무척 많아 빈혈증상까지 일으킬 정도였다. 생리가 없는 평상시에도 아랫배





가 무겁고 무척 피곤함을 호소한다.

진찰결과 직경이 6~7cm되는 혹이 자궁에 자리 잡은 자궁근종이었다.

그러나 아직 여학생이고 수술 후 유착후유증이나 재발 가능성 때문에 수술 결정이 무척 부담스러운 경우이다.

부모와 상의 후에 요즘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GNRH호르몬 치료제로 써보기로 결정했다. 한 달에 한 번씩 피하 주사로 사용하고 있는 이 주사를 5개월간에 걸쳐 꾸준히 사용한 결과 상당히 크기가 줄어 들고 생리량도 많이 줄었다. 그후 박양은 정기적인 진찰을 받으며 관찰하고 있다.

## 자궁근종이란 ?

근종은 여성에서 생기는 종양 중 가장 많은 종양이다. 근종이 생긴 위치에 따라 장막하 근종, 점막하 근종, 점막내 근종으로 나뉘어 진다.

대개는 양성으로 별 문제가 없지만 200명 중 한명 정도는 악성변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 정기적인 검사를 꾸준히 하여 갑자기 커지거나 내부가 지저분하게 변화하거나 하면 수술을 서두르는 것이 현명하다.

아직 미혼인 경우엔 약물치료로도 가능하지만 근종으로 인한 불편한 증상이 심할 때는 연령과 출산 정도에 따라 근종만을 제거하거나 자궁전체를 떼내는 수술을 받는 것이 좋은데 요즘은 이러한 수술이 모두 내시경 수술로 이루어져서 회복이 빠르고 입원기간이 짧아져서 수술비 부담도 적다.

## 위 내용에 대한 질문

### 1. 자궁근종 치료는 꼭 해야 되는지?

근종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근종으로 인해 어떤 증상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결정 된다.

그래서 크기에 관계없이,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는 주기적인 관찰(왜냐하면 갑자기 크기가 빠른 시일 내에 커진다면 항상 악성 변화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므로) 하여 크기와 위치를 꼭 확인 한다(3~6개월 간격).

만약 전혀 크기가 변화하지 않고 환자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

### 따라서 수술을 하는 경우는

출혈이 심하거나 만성 혹은 급성으로 통증이 심하거나 방관이나 콩팥쪽을 눌러서 이상 증상이 있거나 갑자기 크기가 커졌을 때 등이다.

### 2. 200명중 1명정도 악성 가능성은 사실인가?

악성일 가능성은 0.5% 미만으로 본다. 즉 200명 중 최소한 199명은 악성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지만 최대 1명 정도에서는 악성 가능성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